

■ 워크숍 ■

〈자유로운 세계(It's a Free World..., 2007)〉와 침묵 당한 동유럽 이주민들의 욕망

오 승 은

I. 감독의 욕망? 동유럽 이주민들의 욕망?

영국의 좌파 감독 켄 로치(Ken Loach)의 2007년 작 <자유로운 세계(It's a Free World)>는 동유럽 이주 노동자 모집 에이전시의 계약직 직원 앤지의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환상을 비판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싱글 맘에, 비정규직으로 영국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결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제의 문제를 직시하고 비판하고 저항을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착취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기생하려는 앤지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이는 동유럽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며 한 몫 챙기려는 앤지의 허황되고 부도덕한 욕망과 환상을 일깨움으로써 영국인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앤지의 환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영화 <자유로운 세계>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기존의 서유럽 이주 영화와는 다른 것이다. 80년대 이후 유럽 대륙에서는 동유럽 이주민을 주제로 한 영화가 40여 편이 넘게 만들어졌다.¹⁾ 이들 중 많은 영화들은 로쉬츠키(Yosefa Loshitzky)의 개념을 차용하자면, 동유럽 이주민들이 품고 있는 ‘이주 환상(migration fantasy)’을 다루고 있다. ‘이주 환상’이란 동유럽 사람들이 서유럽에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오지만, 그것이 헛된 환상에 불

1) Kris Van Heuckelom, “Londoners and Outlanders: Polish Labour Migration through the European Lens,”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No.91. Vo.2, (2013), 211.

과하다는 것이다.²⁾ 그러나 ‘별반 다르지 않은 서유럽으로 오지 말고 그냥 동유럽 당신의 나라에 남아서 그곳을 바꾸려 해봐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주민들의 환상이 아닌 서유럽 사람들이 품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는 켄 로치 감독의 <자유로운 세계>는 분명 다른 유럽의 이주 영화와는 차별화를 이룬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켄 로치 감독의 준엄한 자본주의 비판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 속 자본주의 비판이 ‘정말로 영국에 있는 동유럽 이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내뿜는 비판의 목소리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다른 사람의 삶을 망쳐놓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조직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켄 로치의 비판에는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³⁾ 그러나 영화에서 주인공 앤지의 네메시스(Nemesis)로 등장해 그녀의 양심을 끊임 없이 자극하는 폴란드 출신의 이주 노동자 카롤(Karol)이나, 앤지와 대척점에서 있는 다른 동유럽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은 현실적이지 않을 정도로 도덕적이고 숭고하게 그려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인물 묘사 속에서 동유럽 이주민들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드러낼 기회는 묻혀버리는 것은 무척이지 아쉽게 다가온다.

현재 영국에는 500,000만 명에 이르는 폴란드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유럽 8개국이 유럽연합에 2004년 가입한 이후

2) Yosefa Loshitzky, *Screening Strangers: Migration and Diaspora in Contemporary European Cinema*,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3) 원문은 “Why do we organize society in such a way that success is marked by how heavily you can screw other people? We ought to be organizing society in such a way that people cooperate, rather than try and exploit each other.” TIFF interview: *It’s a Free World Director Ken Loach*, “*Cinematicial* (3 September 2007), <http://news.moviefone.com/2007/09/13/tiff-interview-its-a-free-world-director-ken-loach/> (검색일 2013, 7월 21일)

2011년까지 669,000명의 동유럽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하였으며,⁴⁾ 그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폴란드 출신이다. ‘폴란드 배관공(Polish plumber)’이라는 표현이 동유럽 이주 노동자의 대명사로 쓰일 만도 하다. 영화 속 카롤은 그런 영국의 동유럽 이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카롤은 정말로 동유럽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동유럽 이주민들은 영화 속 카롤처럼 영국에서의 경험 한 번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꿰뚫어보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가능할까?

본고에서는 영화 <자유로운 세계>에 나타난 켈 로치 감독의 자본주의 비판 아젠다가 꼭 유럽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하는 동유럽 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지로 삼고자 한다. 오히려 감독의 그러한 승고한 정치 비판 아젠다가 동유럽 사람들을 도덕주의라는 협소한 내러티브 틀 속에 가두어버려 정작 동유럽 이주민들의 실제적 요구와 현실적 욕망이 무엇인지 말할 기회를 주지는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유로운 세계>의 이런 한계를 다른 소비에트 진영 출신의 감독이 만든 영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Malenkie Ljudi (2003)>과 비교해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자유로운 세계>와 달리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동유럽 사람들의 자본주의 환상을 좀 더 사실감있게 조명함으로써, 자본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겪고 있는 구(舊)소비에트 진영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는 무엇인지 좀 더 개연성 있는 재현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비교 작업을 통해 <자유로운 세계>에서 침묵당한 동유럽 이주민들의 실제 욕망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고자한다.

II. <자유로운 세계>와 동유럽 이주민들의 도덕적 타화상

영화 <자유로운 세계>는 주인공 앤지(Angie, 24세)가 폴란드 남동부 공

4) Oxford City University's Centre for Comparative Social Surveys, *The Telegraph*, 'Britons have become 'more tolerant of immigration as numbers increase'', 2013년 4월 4일자 인용.<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immigration/9970122/Britons-have-become-more-tolerant-of-immigration-as-numbers-increase.html> (검색일 2013년 4월 28일).

업도시 카토비체(Katowice)에서 이주 노동자 모집 면접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앤지는 영국 노동자 계급 출신의 싱글 맘으로, 이주 노동자 직업소개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에게는 아들 제이미가 하나 있으나, 같이 살지는 못하고 부모님에게 맡겨둔 상황. 꿈이 있다면 얼른 돈을 벌어 점점 더 빠тол어져 나가는 아들 제이미와 한 집에 사는 것. 그러나 앤지의 꿈은 곧 난관에 부딪힌다. 카토비체 출장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앤지를 기다리는 것은 해고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카토비체에서 출장을 끝내고 저녁 술자리를 갖던 날 상사의 성희롱을 거부했는데, 보복성으로 오히려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2000만원(12,000파운드)이 넘는 빚이 있는 앤지는 무슨 일이든 찾아야 했다. 그래서 돌파구로 찾아낸 것이 자신이 여태까지 몸담고 일해서 가장 잘 아는 일, 바로 이주 노동자 직업 알선 소개소를 차리는 것이다. 앤지는 사업 파트너로 친구 로즈(Rose)를 끌어들여 <앤지와 로즈의 레인보우 에이전시>를 만든다. 그러나 곧 앤지는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 소개보다는 불법 이주노동자 알선 사업이 훨씬 더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불법 소개 사업에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 간다.

또 다른 주요 등장인물, 폴란드 출신의 이주 노동자 카롤(Karol)은 점점 더 악덕 고용주가 되어가는 앤지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의 네메시스(nemesis)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그런데 영화 속 카롤은 참으로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처음부터 ‘유럽 2등 시민’의 위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필요와 희망사항을 영국 고용주에게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카롤과 함께 일하는 다른 동유럽 이주 노동자들도 도덕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⁵⁾ 예를 들어, 영화의 중반쯤 앤지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자, 이들 중 몇 명이 극단적 조치를 취해 앤지의 아들 제이미를 납치하고 몸값으로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납치꾼들의 대장은 영어로 상당히 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인물로 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앤지의 위선을 비난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연설을 한다. 이들은 또한 납치라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불공정한 세상의 어쩔 수 없는 희생양으로 그려진다. 앤지에게 몸값으로 앤지가 체불한 임금이외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해도 끼치지 않는다. 납치한 아들 제이미는 너무나 잘 대해줘 자신이

5) ‘Can the Polish Migrant Speak?’, 319.

납치당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이다.

요컨대 영화 속 카롤이나 다른 폴란드 이주 노동자의 역할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앤지라는 서유럽 사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준엄하게 비판하기 위한 매개체로써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켄 로치 감독의 문제의식은 서유럽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직면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간적 존엄성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상을 동유럽 이주민들에게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 여기서 동유럽 이주민 문제란 서유럽인들의 자각을 각성시키기 위한 촉매제 정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켄 로치가 그린 동유럽인들의 타화상이 갖는 문제는 무엇일까? 사회의 기층민으로 밑바닥에서 그날그날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이주민들이 영화 속 동유럽 등장인물처럼 언어적 장벽이나 심리적으로 주눅 들지 않고 별 어려움 없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표출시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납치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정확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만큼만 받아간다는 이야기도 지나치게 작위적 상황설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켄 로치가 그리고 싶은 대로 숭고한 도덕적 구원자가 되기 이전에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실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인류의 단결을 주장하는 켄 로치라는 영국 감독의 아젠다에 폴란드 이주 노동자들이 고민하는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세계>는 동유럽 이주민들을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아주 협소

6) *Ibid.*, 318.

한 내러티브 공간'에 가두어버려,⁷⁾ 사회 최저 기층민으로서 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언권의 기회를 빼앗아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켈 로치 감독의 영화는 동유럽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스스로를 대변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부과된 '서유럽의 서발턴(subaltern) 동유럽'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에까지 이르지 못했다.⁸⁾

III. <별 볼일 없는 사람들>과 동유럽인들의 실재적 욕망

그렇다면, '동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실재적으로 그린 작품은 없을까?' 켈 로치 같은 거장이 아무리 동유럽 이주민들의 입장에 공감한다 해도, 외부인의 시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 내부인의 시각을 가진 그곳 출신 감독이라면 동유럽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단초는 카자흐스탄의 신예 감독 뚜레바예프(Nariman Turebayev)의 2003년 작 <별 볼일 없는 사람들, Malenkie Ljudi>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⁹⁾ 동유럽 출신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카자흐스탄 출신의 뚜레바예프는 서유럽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험의 폭과 깊이가 다른 구(舊)사회주의 진영 사람들이 자

7) Joanna Rostek and Dirk Uffelmann, 'Can the Polish Migrant Speak? The Representation of "Subaltern" Polish Migrants in Film, Literature and Music from Britain and Poland,' in *Facing the East in the West: Images of Eastern Europe in British Literature, Film and Culture*, ed, Barbara Korte, Eva Ulrike Pirker and Sissy Helff, International Forschungen zur Allgemeinen und Vergleichenden Literaturwissenschaft, Rodopi, Amsterdam-New York, 2010, 311-334

8) 'Can the Polish Migrant Speak? The Representation of "Subaltern" Polish Migrants in Film, Literature and Music from Britain and Poland'(Facing the East in the West: Images of Eastern Europe in British Literature, Film and Culture, ed, Barbara Korte, Eva Ulrike Pirker and Sissy Helff, International Forschungen zur Allgemeinen und Vergleichenden Literaturwissenschaft, Rodopi, Amsterdam-New York, 2010, 318.

9)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영화 분석은 다음 논문을 전적으로 참조한 것임을 밝힙니다. David Clark, "Going West: Migration and the Post-Communist World in Recent European Film," *Cultural Politics*, Vo.1, Issue.3, 279-294, (2005).

본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겪으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욕망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주인공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타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가는 벡(Beck)과 막스(Max).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해가는 알마타에서 두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잡동사니를 팔아 큰 성공을 거두겠다는 꿈을 안고 살고 있다.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커다란 세일즈 가방에는 현대적으로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온갖 플라스틱 잡동사니를 넣고 다니면서 판다. 이 둘은 자유 시장 경제의 법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자신들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막스의 대사는 오히려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이 문명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명은 가상으로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잡지에서, 영화에서. 그런데 실제 생활에는 없다. 이 문명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부재상태이다. 단순히 말해 존재하지 않는다.¹⁰⁾

‘자본주의가 TV에서, 잡지에서, 공공연히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부와 행복’은 카자흐스탄에 없을 뿐 분명 다른 곳, 즉 서구에는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막스의 계속 이동하는 욕망 속에 잘 드러난다. 영화가 종반을 치달아 갈 무렵 두 주인공이 일하던 회사는 망하게 된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회사가 생산해내는 물건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이 막스는 독일어를 배우고 비행기 표를 사고 비자를 얻는 등 비밀리에 독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막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카자흐스탄이라는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이지, 자본주의라는 전체 시스템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이 아닌 다른 서구의 어떤 나라, 예를 들어 독일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을 찾아 쫓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이라는 잘못된 공간에 있어서 문제인 것이지 부자가 되겠다는 꿈 자체가 환상이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0) *Ibid.* 282.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켈 로치의 카롤보다는 뚜레바예프의 막스가 좀 더 개연성 있는 동유럽 이주민들의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켈 로치의 <자유로운 세계>로 돌아가자면, 폴란드 출신의 이주 노동자 카롤이 앤지로 상징되는 영국 자본주의 세계에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다고 해서, 분명 실망해 떠난 폴란드로 다시 돌아가기 보다는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영국 내 다른 직장, 다른 지역을 헤매거나 아니면 다른 ‘서구’ 국가 어딘가를 향해 떠났을 확률이 더 높다. 동유럽 이주민들에게 폴란드는 서구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아 보게 해주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서구보다 더 문제 많은 현실의 공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다른 서유럽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켈 로치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비서구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애착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서구적인 것, 자본주의 것이 최고의 것이며 그 밖의 비서구적인 것은 덜떨어진 야만의 것/비문명화된 것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전파되는 상황 하에서 비서구인 자기 나라의 것과 동일시하고 거기에 애착을 갖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¹¹⁾

오히려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다른 ‘서구’에 대한 환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쓴 맛을 보고도 그것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저항하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환상을 품고 체제의 착취 시스템으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앤지처럼, 카롤도 또 다른 환상을 계속 찾아 영국이 아닌 제2, 제3의 서구로 떠나는 것이 좀 더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었을 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비자가 거부되자 이탈리아로 떠날 생각을 하는 뚜레바예프의 막스처럼 말이다.

IV. 나가며: ‘환상 횡단하기’에서 ‘환상 중단시키기’로

<자유로운 세계>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라는 켈 로치 감독의 영

11) David Clark, “Going West: Migration and The Post-Communist World in Recent European Film,” *Cultural Politics*, Vol. 1, Issue 3, 279-294, (2005).

국인에 대한 각성의 부름(wakeup call)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동유럽 이주민 영화를 다룬 서유럽 감독의 작품들은 동유럽 이주민들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 이주민들의 '이주 환상'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체제 차원에서 작동하는 환상의 문제를 개인 차원의 환상 문제로 환원시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반면 켈 로치 감독은 이런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 차원에서 해결돼야 하는 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주 영화의 관점보다는 진일보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각성의 부름이 영국인들 혹은 서유럽인을 향할 뿐, 동유럽 인들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아쉬움이 남는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앤지 같은 영국 사회 내의 노동자 계급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카롤 같은 동유럽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켈 로치의 <자유로운 세계>에서는 자본주의 경험의 결과 모양이 다른 동유럽에서 생성되는 자본주의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은 부재한다. 처음부터 아예 이들이 욕망하는 바는 무엇인지 제대로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뚜레바예프의 <별 볼일 없는 사람>에서 나타나듯, 이제 막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한 구(舊)소비에트 진영에서 신생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시키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은 사실 더 큰 파급력이 있는데도 말이다. 영화 속 주인공 막스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TV나 잡지에서 주장하는 '부'의 이미지는 카자흐스탄에만 가상으로만 존재할 뿐, '서쪽'에는 실제로 있다고 믿는 구(舊)사회주의권의 자본주의 환상도 다룰 수 있는 각성의 부름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그런 각성의 부름이 자동적으로 환상을 깨트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한양대학교 narodna21@hanmail.net